



## 열여섯 SWEET SIXTEEN



식당에 가면 내 양옆으로 두 명 그리고 내 앞으로 또 두 명의 어린이가 앉아있었다. 아무리 근사한 식당의 훌륭한 음식이라도 이게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러다가 첫째가 고학년이 되면서 조금씩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 아이에게 동생들을 맡기고 남편과 동네 산책도 다녀오고 차도 한잔하고 올 수 있게 되었을 때는 숨통이 다 트이는 것 같았다. 심부름을 시키면 두말없이 자전거를 타고 나가는 모습은 꽤나 듬직했다. 자식이 많아 10년 넘게 미치광이처럼 정신없이 사느라 고단했는데 자식이 커가며 일손을 거들기도 하니 그게 또 그렇게 흐뭇할 수가 없었다. 계속 흐뭇할 일만 남은 줄 알았는지.

열세 살에 하늘로 유학을 떠난 아들의 열여섯 생일이 다가온다. 북미에서 열여섯은 Sweet Sixteen이라 불리며 조금 특별하게 대우해 준다. 그리고 열여섯 살부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십 대라면 누구나 목이 빠지게 기다리는 생일임에 틀림이 없다. 아들이 다섯 살 때부터 알았던 한 미국 친구도 얼마 전 운전면허증을 취득했다고 그 아이 엄마가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렸다. 우리 아들과 함께 뛰놀던 미국에 있는 친구들은 이미 진작에 고등학생이 되었고 한국에서 같이 중학교에 입학했던 친구들도 올 3월에 고등학교에 입학한다. 우리 아들의 교복은 아직도 새 옷처럼 그 자리에 그대로 걸려있는데 말이다.

아들이 떠난 후 벌써 세 번째 맞이하는 주인공 없는 생일이다. 나는 아들이 태어난 이후로 단 한 번도 아들의 생일을 슬며시 넘어가 본 적이 없다. 원래 생일에 진심인 편이기도 하지만 우리들의 첫 아이였기에 돌잔치

부터 마지막 열세 살 피자파티까지 정말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아이가 생일을 만끽하고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인지 매년 아들 없는 아들의 생일이 돌아오면 그리움이 넘쳐 가슴이 아려 온다.

아들이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던 어느 날은 이런 생각을 해봤다. 단 한 가지라도 이 아이를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 하고..... 더럽게 말을 안 들어 떨어져 지내고 싶을 만큼 나를 힘들게 했던 적이라도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고 말이다. 하지만 내 아들에게서 흠집은 커녕 먼지 한 톨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일찍 생을 마감한 천재 아티스트의 유작처럼 날이 갈수록 더욱 빛나고 특별할 뿐이다.

마지막으로 고 신해철 님의 "일상으로의 초대" 라는 곡을 띄어본다. 원래 아는 곡이었지만 아들과 헤어진 후 처음 이 노래를 들었을 때 나는 거의 끼이끼이 오열을 하면서 이 노래를 들었다. 자식 잃은 부모를 울릴 의도로 만들어진 노래가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별일 없는 잔잔한 하루하루, 매일 비슷비슷한 소소한 일상조차 내 아들과 함께 나눌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 슬프고 잔인해서 진정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걸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 있는 내내 그럴 것이라는 사실은 참으로 절망적이까지 했다.

산책을 하고  
차를 마시고  
책을 보고  
생각에 잠길 때  
요즘엔 된가 텅 빈 것 같아

지금의 난 누군가 필요한 것 같아  
친굴 만나고 전화를 하고  
밤새도록 깨어있을 때도  
문득 자꾸만 네가 생각나  
모든 시간 모든 곳에서 난 널 느껴

내게로 와 줘  
내 생활 속으로  
너와 같이 함께라면 모든 게 새로울 거야  
매일 똑같은 일상이지만  
너와 같이 함께라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사랑하는 내 아들 준아, 너 역시 몹시 기다렸을 너의 열여섯 Sweet Sixteen 생일인데 이 엄마가 너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열여섯은 참으로 눈부시고 달콤한 나이인데..... 네가 있는 그곳에서도 그 달콤함을 느낄 수 있을까? 아들이, 고통을 피하기만 하면 될 아플 수는 있지만 결국 그런 삶은 반쪽짜리 인생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 열여섯 내 아들을 마주할 수 없는 오늘이 너무 아프고 시리지만 엄마가 무작정 피하지 않고 잘 살아볼게. 엄마가 언젠가 이 세상살이 마치고 네 곁으로 가려면 부단히 열심히 그리고 올곧게 살아야 하니깐.

나의 준아, 너의 sweet sixteen을 온 마음으로 축복한다. 엄마 꿈에 와주면 꼭 안아줄게. 사랑한다.

\*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와 26년 동안 생활했던 필자는 2017년 8월부터 다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나는야 1.5세 이주민'은 '재미교포1.5세 이주민'인 필자가 한국 생활을 하면서 전하는 생생하고 유쾌한 한국 이야기이다. <편집자 주>



“정상의 자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비가 하면 틀림없습니다.

“마켓 최고의 가격으로 30일 안에 팔아드립니다.”

아이비만의 노하우를 경험하세요! 실적이 증명합니다.  
탑에이전트 아이비와 리스팅을 하시면 아래의 혜택이 함께 덤으로 옵니다

- 01 무료 인스펙션 Free Inspection
- 02 무료 집수리 Free Handyman Work
- 03 무료 집단장 Free Staging
- 04 무료 감정 Free Appraisal
- 05 무료 보험 Free Home Warranty
- 06 무료 창고 제공 Free Storage
- 07 무료 터마이트 검사 Free Termite Inspection
- 08 후불제 페인트 Paint (pay when close escrow)

(\* for regular commission listing only some terms and condition will applied)

\*\*\* 시니어 스페셜 \*\*\*

은퇴후 여유로운 인생의 최고의 선택!!

새로 나온 리버스 모기지 플랜으로 여유 자금/현금 챙기시고  
남은 기간 집페이먼트 없이 다운 사이즈 하세요~ 지금 상담 하세요!!

주택/ 상가/ 사업체/ 투자매물 전문  
차별화된 전문가의 서비스가  
꼭 필요합니다

꿈과 사랑이 싹트는 내 집 마련을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에이전트 아이비를 찾아주세요

※ 새집 분양, 여러지역 새집 매매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부터 투어, 입주하실때까지 자세히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 첫 방문시 저와 함께 가셔야 더욱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으며, 매입 거래시 어떠한 수수료도 지불하지 않습니다.



아이비  
VICE PRESIDENT  
Member of NAR, CAR, PWR  
CalDRE#: 02086695

LEAH IVY CHANG REALTOR  
LeahChangRealty@gmail.com

714.904.1202

Buena Park: 6561 Beach blvd  
Irvine: 8 Corporate Park #220